

[영남대학교 총여학생회 소모임 '새울']

고민은 어떤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에서 더 많이 생긴다.

성공하고 못하고는 하늘에 맡겨두는 게 좋다.
모든 일은 망설이기보다는 불완전한 채로 시작하는 것이
한 걸음 앞서는 것이 된다.

재능 있는 사람이 이따금 무능하게 되는 것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이다.
망설이기보다는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라. - B. 러셀 -

소모임 '새울' : 여성*영화*올림이 어우러진다는 뜻

소모임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해지고, 선전물들을 부착하는데에 3년을 넘게 걸렸다.

더 힘든 것은 개강사업이다 이런저런 사업과 투쟁을 하다보니 소모임모집이 동아리 모집보다 더 늦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주위 몇몇 사람들이 늦은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보내왔고, 스스로도 지금해서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내기 사업을 하는데 있어 분명 시기적으로 좋은 때(입학 직후면 쉼도 좋겠네요. 혹은 그 이전부터...^^)가 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호기(좋은 기회)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절대적 잣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된다.

시작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준비주체의 망설임이다.

'새울'모집의 시작은 대자보였다. 선전을 하고, 붙이는 데에는 몇시간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선전을 하기까지의 망설임, 게으름으로 몇 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모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소모임이 단지 일꾼 남기기에 급급하다는 이유로, 혹은 힘들어서 등등의 이유로 전문적 내용을 등한시 한 채 '끈끈한 인관관계만 내세운다거나 하면 큰코 다친다. 소모임을 유지해가고 발전하는 가장 큰 밑거름은 사람이지만, 소모임의 전문성이 없다면 이는 달걀의 노른자가 없는 것과 같다.

재미와 내용이 함께 할 수 있어 구미를 당길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일꾼들처럼 힘든 것을 각오하고, 참고, 극복해내려는 의지가 이제 가입한(혹은 가입하려는) 새내기들에게 있을 리 만무하다. 핵심인 우리들도 재미없는 생활을 싫다. 소모임원들이 재미있어하고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용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자

모집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

모집방법은 무작위 대중에 대한 것과 핵심공략 두가지 병행한다.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선전/모집을 하고, 한편으로 특정 과나 특정 인물에 대한 선전,모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는 학교 상황에 맞게 주체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이들속에서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로 새터나 대중체 등에서 만나왔던 새내기 등 계기를 잘 살려보자.

성과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작게나마 소모임 스스로 성과물을 내어올 수 있는 장치를 가지자. 작은 선전도 좋고 화장실 신문 몇 장도 좋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해도 좋다. '새울'의 경우 2주일에 한번 영화 상영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소모임이 몇몇 일꾼을 남기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간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총여학생회 소모임은 대중사업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력이 없다고 대중소모임으로서의 면모를 포기한다거나, 사람 남기기에 급급함을 보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애는 이제 우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순간 그 새내기들은 부담을 가지기 시작한다.

소모임 사업의 핵심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내기 사업일 것이다. 하지만 소모임이 사람남기는 도구로 전락해서도 안될 것이다. 여학일꾼 발굴/ 사람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실망하거나 그만두면 안된다. 왜냐하면 소모임은 대중단체이므로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선장이 목적지를 잊어서는 안되듯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주체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무리하게 총여사업과 투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소모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게 마련이다. 소모임원들이 충분히 총여사업과 투쟁에함께 할 수 있다.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총여 소모임인데 당연히 해야지"라는 공식을 틀어밀면 소모임원들은 불안감 내지 부담감을 안게 되고, 소모임을 멀리.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와 장치를 늘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모임원들에 대한 주체의 꼼꼼한 총화

새내기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총화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간적 관계가 깊어야 할 수 있다.

믿음과 결의를 가지고 있어야 할 투실한 기둥, 주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재미를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체가 올바로 서야 소모임이 올바르게 선다는 것을 기억하자.

새울의 기간 총화

'새울': 처음 인원 8명

- 주체 : 총여회장과 간부
- 선전과 작년 부회장의 소개로 들어옴. 들어온 새내기의 권유로 가입.
- 원래 알고 지내던 2학년 들어옴(짱). 과 후배 추천
- 여려관계로 알게 된 새내기 들어옴 것을 권유.
- 새터 때 안 새내기 권유로 들어옴

이후 몇몇·소개와 관계로 3명 더 들어옴

- 새터때 알게된 새내기 2명
- 임원의 친구 1명

방향을 기점으로 그만두는 임원 두명 - 타격 :

여성문화제 영화제 준비

첫모임 할때 8명이지만 2~3명이 처음이었다.

3명이면 모임을 할 수 있다. 우선 시작하자.

하지만 처음오는 이들에게 잘 안될 것 같다는 인상이나, 궁색해보이는 것 같은 이미지를풍기면 하기 싫어한다.

그만두는 임원이 있으면 소모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때에는 그만둘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나섰던 어려움들

새울의 그만두는 새내기 : 한명은 이유도 모른채 연락이 되지 않고, 한명은 음악대학이라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지 못하여 그만 두게 됨. 음대새내기의 경우 소모임과 총여학생회, 운동에 대한 부담감등이 크게 작용. 소모임 친구들에게는 바쁜 일정만을 얘기함.

과외의 문제 : 사람을 빼간다는 식의 고민이 있음을 알게됨. 새내기도 부담스러워함. 이럴때일수록 새내기와의 끈끈한 유대와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 무조건 총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하면 안됨.

소모임원들간의 고민의 깊이나 대하는 정도의 차이 : 처음 시작할 때 같은 수위와 고민이던 새내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달라짐. 만나는데에 잊어서는 차등을 두지 않아야 하며, 개인적으로 만나고 고민을 풀어내 줄 수 있는 주체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

총화대회 질문지

1. 올해 어떻게 결의를 하게 되었나요?

- 결의할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나 이유
- 처음의 각오와 자세, 마음가짐

2. 올해 자신의 운동목표는 무엇이었나요?

3. 그렇다면 자신의 운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 그리고 성과와 한계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 올해 활동중 좋았던 것, 나빴던 것을 말해봅시다.

5. 향후 자신의 운동전망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6. 마지막으로 할말이나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18(월) | 19(화) | 20(수) | 21(목) | 22(금) | 23(토) | 24(일) | |
|---------------------|---------------------------------------|-------------------------|--|-------|---|-------|------------------------------------|
| 화장실 신문 공고(사퇴·선거) | 2시 이상 내 시달 11시 7등 여우시 TK와CY-국제관 | 2시, 4시 이상 내 시달 | 이동여학생회(이도12) 사퇴 ←→ | | <금강산 모꼬지 : 22일 9시 출발> --> 6시 총여학생회실 모임 | | 빨간우체통 설치완료 중간고사 기간 여회장님과의 만남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사퇴일 | | 「서울」-영화상영 성관련 강연(바다) | 이동여학생회(복지12) : 故윤금이씨 12주기 명사 명사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화장실 신문 | | | 이동여학생회(학관12) | | | |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 | | | | | |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화장실 신문 | | | | | | |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 | 학생회 선거 | | | | | |

민족영남대 하반기 사업계획서

목표

- 장기적 전망 아래 여학생회 역량을 강화하고, 총/단대/과 여학생회 기층건설의 토대를 만들어간다.
- 자주통일 원년을 준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론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학우들과 합의해 가고, 반성폭력 문화를 만들어 간다.

◆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답게

(1) 대의체제 발동, 간담회 또는 총여학생회 활동 해설하기

- 중앙운영위원회 합시다
- 단대 여학생회, 여성위원회들의 역할 높이고 지속적으로 모임(만남) 진행
- 과 여학생회 건설 토대 마련 --> 과 여학생회장 반드시 만나고 연락하자.

(2) 총여학생회! 총여학생회 답게

(1) 복지사안 점검 및 집행

- ① Home-p 개설
- ② 여학우 휴게실 점검
 - * 빨간우체통 설치
- ② 생리대 자판기

(3) 일상대중사업을 통한 학우만남

- 이동 여학생회 : 매주 수요일(or 화요일? 날짜는 정하도록 하지요 ㅋㅋ)
- 하반기 소식지 발행

(4) 강연 <---- 여성정치학교(공약)>

- ① 성관련 하나
- ② 취업관련 하나
- ③ 더 고민해 보아요!!

◆ 3대 핵심투쟁과제

1. 반성폭력 투쟁

- ◎ 의식화 내용
 -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반성폭력 학칙 개정의 필요성
 - 학내 성폭력 사례 예시와 해결과정
 - 성매매 방지법 등 성매매 관련 올바른 관점을 알려낸다.

◎ 실현 방도

- 기획자보전 / 화장실 신문
- 강연회

- 이동 여학생회 : 염서쓰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서명운동
- 웹 자보(???)

※ 꼭 하자!!

- 반성폭력 투쟁의 주체를 세우자.
- 반성폭력 투쟁의 이해와 요구성을 총학생회 대의체제에서의 해설과 합의로 이끌어내자.

2. 여대생 노동권 쟁취 투쟁

◎ 의식화 내용

- 성차별 근절, 모성보호를 비롯한 여성의 노동권확보 문제에 대한 의식화
- 생리휴가 폐지 등 주 5일 근무와 여성노동의 문제
- 여대생의 실업의 심각성을 대중사업을 계기로 기획선전으로 알려내자.
- 비정규직의 차별과 그 심각성을 알려낸다.
- 여성의 일할 권리와 의무, 여성의 일에 대한 중요성을 여성들 스스로 알아가도록 하고 알려낸다.

◎ 실현 방도

- 기획자보전 / 화장실 신문
- 홈페이지 실업(취업) 관련 박스(?) 마련
- 강연 ???
- 웹자보 ???
- ※ 여대생 실업 대책위원회
 - 주체를 세워내고, 고민을 높여내도록 한다.

3. 여성통일투쟁

1) 주한미군 철수 투쟁

◎ 의식화 내용

여성들에게 미군이 미치는 성폭력, 성매매의 영향을 주요한 내용으로 학내에서 풀어내면서 여성에 대한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쟁점화하자.

◎ 실현 방도

- 기획자보전 / 화장실 신문
- 이동 여학생회 - 유인물
- 웹 자보(???)
- 10/28 故윤금이씨 12주기를 맞으면서 그 주에 있는 7차(10. 27) 학교별 마당사업을 잘 진행하자.

2)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의식화 내용

-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문제점, 피해사례를 알려낸다.
- 국가보안법 존치/ 개정에 대한 반대이유를 알려낸다(말이 이상함--a)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반통일수구세력의 반북대결책동을 알려낸다.
- 북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실현 방도

- 100만인 청원운동
 - : 핵심일꾼 - 1일 10명 학우 만나기/ 존핵심 - 상황에 맞게 목표를 세워 만나기
 - > 전여대협 홈페이지 매일 총화
- 각종 홈페이지와 카페 등에 청원운동 배너를 달아 온라인 청원을 벌여낸다.
- 성조기/ USA 그려진(적힌) 옷 단일기 그려진 반팔 T로 바꾸주기
- 태극기/인공기 뱃지 나눠주기(총학 건의)
- 웹사이트???

◆ 영역별 투쟁

- 쌀개방 지지 투쟁
 - 여성 농민반 주체였던 친구들을 발동하고, 다시금 농활에 참가했던 학우들을 조직해서 9. 10 시군농민대회와 9. 11 광역대회에 여학생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 농활지역 여성농민회 그리고 지역여성단체, 지역 여학일꾼들이 함께 연대연합투쟁으로 만들어가자.
- 호주제 폐지 투쟁
 - 하반기에 정기국회에서 여러 개혁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여당의 분위기들이 있다. 호주제 폐지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의 여론에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대중사업 시기에 학우들에게 더 많은 대중의식화 사업을 벌여서 꼭 올해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하자.

◆ 조직사상운동

1. 목표
 - 관계를 맺어왔던 이들을 여러 방도를 통하여 총여로 묶어 내고, 여학운동에 대한 고민을 높여낸다.
 - 새로운 인자들을 대중사업과 투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단련해낸다.
 - 단과대 여학생회(단대에서 활동할 주체 마련), 총여학생회 건설을 잘 만들어간다.

2. 방도

- (1) 교양, 학습 생활
 - 핵심일꾼 : 빠시게 - 계획은 함께 짜들어 가도록 합니다.
 - 존핵심일꾼 : 책읽기 등과 같은 정기적 모임을 가져간다.
 - 새내기 or 관계있는 : 우리 모두 좀더 논의...^^a
- (2) 조직생활
 - 조총례를 반드시 합니다.
 - 일꾼들 활동 총화와 학습 점검을 꼭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3) 여학생회 건설 사업

- 학생회 건설 사업 (☆☆☆)
- 선거는 여학운동을 대중화하고 학생회 건설운동을 학우들 속에서 대중적으로 벌일 수 있는 위력한 공간이다.

선거를 대중적 지지기반을 축성하는 학생회 선거로, 여학단위 대중적 모범의 정형을 만들어 가자. 선거 공간을 통하여 여학생회의 역사성을 알려내고 여학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대중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여학생회 기층건설을 위한 간담회 사업(?)을 진행하자. 여학생회 건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거 시기 이전부터 그에 대한 고민들을 높여내고 관심 있는 학우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과대 여학생회 건설 또는 단대 차원의 활동을 하나갈 주체를 마련하도록 합시다.
-총여학생회를 잘 건설합시다. : 선거회의를 어서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요!!

(4) 새내기사업

- ★ 소모임 '새울'
- ① 정기적 모임을 가진다.
- ② 고민을 높여낼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한다.--> 함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 ③ 내년 고민 등 계획을 이것저것 세워봅시다. 예) 짱...
- ④ 영화보기/토론/ 상영 등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 두리에 있는 많은 새내기를 잘 만나가자.
한명한명 고민해 봐야 할 듯 합니다.

| | | | | | | | |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천단 꾸림 · 선전 준비 · 유인물 완성 · 기획단 회의 · 언론사 연락 |
| | | | 기획안 확정 | 신문사 연락 섭외관련 확정 (오전)포스터넘김 | | 포스터 부착완료 |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홍보 완성 -포스터.PC.대자보.. · 준비단 활동 · 반성폭력거리 조성 |
| 확장실신문 동영상완성 무대공연 신청 | 동영상홍보시작 | | | | | | |
| 27 | 28 | 29 | 30 | 1 | 2 | 3 | |
| | | | | | | | |
| | | | 추석연휴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폭력 주간 · 퇴치단 활동 · 준비단 조직생활 |
| 4 | 5 | 6 | 7 | 8 | 9 | | |
| | | | | | | | |

Обращение <형태>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square 3-2.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양태의 양태 X, \rightarrow λ 가 붙을 때, \rightarrow λ .

가변명,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불변명,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가변명,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불변명,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이명명,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가변명> <불변명>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rightarrow λ 가 붙어 있다.

- 가변명 = \rightarrow λ
- 불변명 = \rightarrow λ
- 이명명 = \rightarrow λ
- 가변명 = \rightarrow λ
- 불변명 = \rightarrow λ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rightarrow Обращение

대경여대협이 학생회 선거 여성정착과 사업 부문 제안합니다.

발신: 15기 대구경북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수신: 각 대학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선거운동본부

<< 선거 정착을 제안합니다 >>

여성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여성들의 요구가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성매매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오랫동안 싸워온 호주제 역시 거의 폐지로 대세가 물리고 있으며, 총선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을 39명이나 배출하면서 여성의 정치 세력화에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하듯 여대생들의 의식 또한 한층 성숙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년학생은 사회 변혁의 주력군이며 대학 사회는 진보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여대생들의 의식변화와 주체성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학교 단위에서의 여학생 운동이 광범위하고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점점 성숙되고 발전하는 대구경북지역 여대생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그릇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또한 이미 우리 여학우들은 학내에서 반 이상의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가부장성으로 여대생들이 학원의 주인주체로서 나가는 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경여대협에서는 정세 발전의 요구, 여성들의 자주적 진출의 확산을 받아안은 2005년 학생회 선거에서 여대생들이 대학 사회에서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학우들의 요구를 실현해낼 수 있는 여성 공약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절반이 넘는 여학우들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복지 공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학우들에 대한 정책은 진정으로 여학우들이 학내에서 주인주체로서 가면서 학내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주인이 되는 자주적 학생회, 우리 학생회의 구현이 실현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책 1 반성폭력 정책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십 여년 전부터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대학 사회에서의 성폭력적인 문화는 과방에서 강의실에서 학교 곳곳에서 끊임없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 반성폭력 정책은 우리 학우들을 학원의 주인으로 세워내는데 필수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아직 반성폭력 학칙이 없는 학교도 많고 있다하더라도 많이 반성폭력 학칙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반성폭력 학칙은 단지 성폭력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입니다. 학칙 안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치유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비용지원과 상담, 학내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한 대학 본부 차원의 반성폭력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 가해자 처벌사항에 대한 세부항목 마련,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 성폭력 상담소 전문상담원 배치와 예산 확보 등이 명시되어 있는 진보적인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에서 반성폭력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 강의평가서에 성폭력, 성차별 조항 첨가

아직도 수업시간에 성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교수님들이 있지만 교수님들에 대한 경고나 제제는 교수중심적인 대학 사회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 때문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도 제대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가 다음 학기에 버젓이 수업을 맡아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수님들에 대한 강의 평가는 수업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성폭력을 강의실에서 근절하는데 있어서도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반성폭력 강연 실시

반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반성폭력 강연회를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교직원에게까지 실시하면서 대학 내 반성폭력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 2 건강한 대학문화 만들기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고 한 달이 넘었지만 성매매 집결지(속칭, 집창촌)에 대한 단속 외에는 버젓이 단란주점, 룸싸롱 등의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들여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단란주점 등의 성매매 업소들이 즐비하고 술을 먹다보면 선배들이 3차, 4차로 속된 말로 아가씨 있는 술집으로 후배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군대를 가기전에 '막지를 떼기 위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사회가 결코 성매매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 건강한 대학촌 만들기: 학교 주변 성매매 업소 경고 또는 추방

학교 주변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성매매 업소 또는 유흥업소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매매를 반대하는만큼 우리 대학 주변은 성매매없는 건강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와 불건전한 유흥업소를 퇴치하고 우리 학교 주변을 건강한 대학촌으로 만들어갑시다.

>> 군성매매 반대 선언

군에 가기전, 군 복무 중 선배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성매매를 권유받고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군대를 핑계로 한 성매매 이제는 척결해야 합니다.

정책 3 생리휴가

여학우들이 생리로 인해서 겪는 고통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모성보호의 측면으로 생리휴가를 허용한 것도 여성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지는 사회적

재생산(교육, 육아)과 생물학적 재생산(임신, 출산, 수유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리휴가, 산전 후 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사회에서도 여학우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리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아대에서 올해 진행된 정형이 있습니다.

동아대에서는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가 함께 교수님들의 수업권 문제 때문에 단대별 학장과 각 처장들이 함께 하는 교무회의에서 학생과를 통해 교수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도장을 교무처장과 총여학생회장의 도장으로 받는다는 방식을 총여학생회에서 건의하고 그것이 채택된 과정입니다. 시행하고 아직 한 학기가 지나지 않아서 교수님들이 확실히 인정해주는가하는 불안감이 조금은 존재하고 있고, 확실하게 인정했는지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학우들이 여성문제의 다른 사안보다 아주 관심이 좋고, 하루에 6,7명 정도로 학생회실을 찾고 있는 등 학우들의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별첨문서> 참고

정책 4 여성소모임 지원사업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대학사회에서는 사회의 모순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성문제도 그러합니다. 차별적이고 가부장적 모순들이 대학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학생 운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학생 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모임과 학회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여학생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내 여성 소모임 지원사업으로 여성문제에 고민을 하는 학우들의 공간을 열어주고 활동을 담보해주는 것이 여학생운동의 인적물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책 5 북녘 평양 빵공장 건립사업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 정책으로 이북에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우리의 미래, 통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이 식량난으로 쑥쑥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후대를 책임지는 여성의 이름으로 북녘 아이들을 위해, 평양에 빵공장 짓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남측의 '우리저레하나되기운동본부 여성위원회'(가칭, 이후 북녘 어린이 영양 빵 공장 운동본부) 협의로 남과 북의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북측은 평양에 빵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부지 및 건물과 인력을 제공하고 남측은 빵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자가발전기 포함) 일체를 지원하고 원재료의 공급을 통해 빵을 생산합니다.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선, 빵공장 건립을 위한 중자돈을 냅니다. 이후에 매달 빵 생산을 위한 1구좌(5천원)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5천원이면 빵 3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회에서 매월 5천원씩의 후원이 우리 통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정책 6 여학생 휴게실 설치 및 개선사업

여학생 휴게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사업은 여학우들이 우선 맘놓고 쉴 곳이 없다는 논의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우들에게 단순히 쉴 곳을 제공해주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학우들이 맘놓고 쉴 수 없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뿌리박혀 있는 차별적인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학생휴게실은 여학우들이 맘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한다는 것, 여학우들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 여학우들이 주인되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대학 사회에서 여학우들 스스로가 주인되는 공간, 여학우들의 공간,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의미로 여학생 휴게실을 고민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학생 휴게실은 단순히 여학우들이 쉴 곳 이상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학생 휴게실이 없다는 여학우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학생 휴게실을 이미 설치해 놓았다면 이제는 여학생 휴게실을 여학우들이 주인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생활문화적인 공간, 여학우들이 직접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여학생 휴게실을 개선해봅시다.

<< 내경여대협과 함께하는 학생회 사업들 제안합니다. >>

사업제안 1 3.8 여성대회

120여 년전 미국의 섬유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참정권을 달라”고 투쟁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3.8 여성의 날을 맞이해 매년 서울과 각 지역에서 3.8 여성대회(여성노동자대회)를 성사해오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고 실천과제를 결의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투쟁해야할 과제입니다.

2005년 3.8 여성노동자대회를 각급 단위 학생회에서 함께 만들어갑시다.

사업제안 2 7월 (2회) 여성역사기행

전여대협에서 2004년에 진행한 '1회 여성역사기행' 사업의 성과를 이어 2005년 '2회 여성역사기행'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회 여성역사기행'을 통해 여성들의 역사를 알려내고 여성의 자주성을 상기하며 여대생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여성학 소모임, 학우들, 여학생회 간부들이 여성운동을 생동감있게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여 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꾀하고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성역사기행을 통해서 잊혀졌던 여성의 역사를 알려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모색하면서 대학 여학생들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남학생들도 여성운동을 이해하며 대학 여학생운동 핵심인자를 육성 발굴할 것입니다.

7월 12-14일에 진행하고 여성사 전시관, 위안부 할머니 나눔의 집, 허난설헌 생가 등의 곳을 둘러보면서 역사 속에서의 여성의 발자취를 찾아봅니다.

사업제안 3 대중사업과 강연사업에서 여성문제 녹여내기

여성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과 반미와 같이 한국사회의 변혁과제입니다.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변혁과제에 대한 인식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7, 8월 일정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학습커리/추천도서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II.한국사회의 성격 (대경출판 교양자료집) ▶ 반성폭력 ■ 노동자 -학생 결연대회 ■ 대구시민대회 |
| | ■ 촛불시위 | ■ 촛불시위 | ■ 촛불시위 | ■ 촛불시위 | ■ 전국농민대회 ■ 촛불시위 | | 『성폭력을 다시쓴다』 『20세기 여성사건사』 |
| 25 | 26 학습의 날 | 27 | 28 실천의 날 | 29 학습의 날 | 30 | 31 | ▶ III.반미/ IV.통일 『우리 여성의 역사』 『조선의 여성들 -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
| ■ 전국총여회장단 회의 | | ■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상주) ■ 통산대 발대식 | | | | | |
| 1 | 2 | 3 | 4 | 5 | 6 학습의 날 | 7 | ▶ 여성과 노동 『끝나지 않은 시대의 노래』 『여성노동운동사, 2』 『여성과 일』 |
| 역 | 사 | 기 | 행 | 서울모임 | | ■ 민족공동행사 지역행사 | |
| 8 | 9 | 10 학습의 날 | 11 실천의 날 | 12 학습의 날 | 13 | 14 | ▶ V.우리민족제일주의 ▶ 여성과 통일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족과 페미니즘』 |
| | | | | | 815 민족공동 | 여성평화한마당 |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VI. 심장에 새길 여름, 참된일꾼되기 |
| 행 사 | | | | | | | |
| 여성통일한마당 | | | | | | | |

대경여대협 7,8월 이렇게 살아봅시다!!!

7,8월은 이런 시기입니다

- ▶ 학습과 실천 활동, 조직생활을 통한 일꾼 단련의 시기
- ▶ 상반기 평가를 진행하고 조직을 복구하여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
- ▶ 여성역사기행을 통해 사람에 대한 구체적 조직적 성과를 남기는 시기
- ▶ 여성의 몫을 찾아가는 통일투쟁으로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고 여성통일운동을 펼치는 시기

7,8월 이렇게 살아갑시다

>> 조직생활 안착화
수첩운동
조직생활 규율 세우기

>> 학습

주 2회 학습(학습 커리는 매주 제출), 주 1회 정세토론
책임기 운동 - 매일 조종례 시간에 총화하기 (공인일)
조례 시간에 신문발제 정례화 안하 바다 의장님 →

>> 실천활동 → 대형의 발전활동 (조종례시간에 총화)

주 1회 학내 선전전
일상적 유인물 살포
매일 진행되는 이라크 파병 철회 촛불시위 결합

■ 경북여성농민한마당

• 여성역사기행 → 중첩운동

• 여성캠페인 → 통일

↓
< 지역통일축전 >

* kydh 회의 →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11시
(이번)

15기 대경여대협 상반기 평가

■총평

- 대경여대협을 건설하고 이름을 알리고 지역운동에 영향을 줬다.
- 기층조직이 없다보니 일꾼 재생산이 어렵다.
- 상층조직으로 요구되어지는 활동, 연대사업의 요구성은 높아졌다.
- 각 대학에 장기적 전망을 세우지 못했고 구체적이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 실질적인 여대협 사업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

■사업평가

- 3.8 여성의날 여성노동영화제, 3.8여성노동자대회, 3/13총회, 3/17수요시위, 4/1출범식, 4/15출범식, 봄농활, 5월한마당, 6/15참여, 여름농활
여성캠페인 - 4,5,6월 진행(대구대, 영대 등..)
대경여대협 대표자회의 - 2/21, 3/27.. 총3회
학교별 간담회
- 기층이 없고 대중이 없이 사업이 상층에만 머물렀다. →
 - 매 사업마다 여학일꾼 조직화가 잘 안 된다.

■중집운영

- 처음에는 매주 월요일 11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으나 몇 주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지 못했다.
- 하방대학 총화와 생활 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하방대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지 못했다.

■대학지도하방

- 대학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했다.
- 하방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진 지도가 안 되었다.
- 학교단위에 지도가 장악되지 않아서 조직화에도 어려움이 나셨다.
- 일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총화가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3대 핵심과제 >

반성토론회

여성노동권

등일

지역 만들기 / 개별 계획 제출하기.

1. 영남대 여학생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

- 여학생 운동 과제 토론

2. 여학일꾼 단련 - 장기적 구도틀 그리며

* 학습 : 선배단위 -

새내기

- 여학일꾼 수련회

3. 여성문화제 준비

여성문화제 준비단 모임 진행

* 모든 여학일꾼 연락 : 과여학생회까지

* 준비단 재정비 : 단대 주제 및 영상단/자봉단/홍보단/영화제 준비단(서울)

---여성문화제 상과 주제 및 날짜 : 늦어도 8월 첫째주

★ 각 단대 여성문화제 준비주체 + 자봉단/ 영상단(보배)/ 영화제 준비단(서울향 미영)

★ 7월 마지막 주 첫 만남 - 7월 28일(?)

4. 여성역사기행

* 조직화 - 학내 여성소모임/ 과 단대 여학생회(부)장

원황 - 총여1명/ 자원대 여성위원장/ 방송국 UBS 2명/ 전주/미영(?)

* 참가자들 모임 진행 (7월)

7월 25/26일중으로 고민

5. 학내 복지 문제 해결

* 생리대 사판기

* 여학생 유계실 재정비

- 빨간 우체통

6. 반성폭력

규정안 논의 및 긴급/ 법적 자문

7. 여성실업

8. 여성과 통일

9. 방중 실천과제

* 수검운동

* 일상적 학우 만남

* 실천단---> 의장님의 전면 고민...

* 선진진

* 과병렬회 촛불집회

10. 8.15 통일대축전, 민족공동행사

★ 방중 조직생활 ★

<조회> 아침 9시 - 대경여대함과 함께

여성정세 발제 - 원/복 : 은하, 화/금 : 마다, 수/토 : 의장

실천과제 내어오기

<학습> 일주일 2번

책읽기 운동 - 매주 금요일 종래 종화

<종래> 하루 점검 - 실천과제 종화

★ 경북 여성 농민 한마당(성주) ★

- 각 여성농민만 주체를 연락 : 21일 모임 - 제안

7/19

'영남대 답게!! 30일 뽀박질'

1. 영남대 답게란?

- 기간 선배들이 쌓아온 빛나는 투쟁의 전통
- 실천 제일 주의
- 빛나는 동지에
- 조직에 대한 믿음

토론해봅시다.

1. 영남대 답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영남대답다의 의미를 오늘에 있어 우리는 잘 구현하고 있는가요?
3. 영남대에서 극복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2. 30일 뽀박질의 상과 의의

- 기간 진행하지 못했던 조직생활의 안착화를 만들어 낸다.
- 재발 공부중 하자!! 똑똑한 영남대 되기,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 학교에서의 일상실천을 이제는 좀 해본다.
- 8.15 민족공동행사를 지속적으로 성사시킨다.

3. 30일 뽀박질의 목표

- 일상 실천에서의 정형을 만든다.
- 각 단위마다의 구체적 운동전망을 내어온다.
- 방중 조직생활 영남대 7대 과제를 꼭 달성하자.
- 이런 성과로 8.15 민족공동행사 100명을 조직화해낸다.

4. 대중 조직화 방도

"모든 성과를 8.15 민족공동행사로 모아내자"

★ 농활 대원들에 대한 후속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 농활대 뽀박이, 농활대 엠비등을 적극 활용한다.
- 싸이월드, 세이클럽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인다.

★ 역사배움터를 성과있게 잘 진행한다.

- 농활대원들을 중심으로 조직화 한다.
- 학교 기간 총회를 잘 한다.
- 농활대원들을 8.15공동행사로 이끄는 각 단위의 구체적 계획을 잘 세운다.

★ 대의체계를 잘 활용해 8.15추진위원회를 잘 꾸려낸다.

- 대의체계를 잘 발동하는 것은 기본이다.
- 8.15 추진위원회를 잘 활용해 비긴단위까지 함께 한수 있게 하자.

★ 통일선봉대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자.

- 일꾼단련에 유력한 방도이다.

5. 시기별 흐름

1시기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 역사배움터를 잘 진행한다
- 역사배움터 속에서 통신대 조직화를 한다
- 역사배움터 속에서 방중 조직생활을 합의본다.

2시기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 통일선봉대를 잘 보내준다
- 조직생활의 돌입기

3시기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

- 조직생활의 본격기, 최대한 힘있게 진행

4시기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 구체적으로 8월대회 조직화를 한다.
- 8월 대회를 대중적으로 참가한다.

6. 방중 영남대 3대영역 핵심과제

ㄱ. 똑똑해지는 영남대!! (학습)

1. 하루 100쪽 책 읽기 운동

2. 하루 20분 이상 꼭 정세학습진행하기
(신문발제, 정세문건을 활용하자)

3. 학습시간을 꼭 지키고 사수하자

나. 실천 꼭 부러지게 하는 영남대!!(실천)

4. 하루 한번 꼭 실천 투쟁을 진행하자.

5. 실천 나가기 전 실천 끝난후 꼭 사전교양과 종회를 하자.

다. 뭉쳐야 사는 영남대!!(생활)

6. 하루 조, 종회를 집단적으로 꼭 진행하자.

7. 일주일 계획을 꼭 세우고 진행하자.
(학습 , 실천 , 생활)

7. 핵심과제 실현방도를 위한 4대 놀이 - 방중 생활의 꽃

★ 수집운동 놀이

- 7/19~8/15일까지 30일동안 영남대 일꾼들의 조직생활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 주말계획을 비롯한 하루계획(학습, 실천, 생활)을 시간별 단위로 세우고 종합하면서 일꾼들의 전투력까 균형을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 30일동안 영남대가 해야 할일, 명인등을 세기놓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운동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방안이다.
- 수집은 대경총련에서 준비한 50일전투 수집을 활용합니다.

★ 성과표 만들어 그래프 그리기 놀이

- 각 단위마다 일꾼들의 학습목표, 8.15조직화 목표, 조종래 참석등을 표로 그린다.
- 하루 하루 성과표를 체크한다.
- 주마다 모범적인 성과표를 그린 일꾼은 엄청난 상품을 부종이 제공하고 표창한다.
- 모범일꾼으로 선정된 일꾼은 영웅칭호를 받고 그 모범은 각 단위로 전파되게 된다.

★ 오전에 집단 책임기 놀이

- 실제 학습할 시간이 잘 담보 되지 않는다.
- 우리 일꾼들의 학습하고자하는 의지도 부족하다.
- 공부할 시간을 집단적인 힘으로 담보한다.
- 법정관 시원한 강의실을 8월 대회 전까지 대어한다.
- 그 강의실에서 모든 일꾼들이 방학동안 오전시간은 같이 거기서 채운다.
- 2시부터 게시한다.

★ 콩팍지 놀이

- 동지애를 높여낸다
- 마니또 게임과 비슷하다.
- 집단조례 첫 날에 신청한다.
- 동지들끼리 비밀작을 지어서 행거주고 나중에 8.15일 서울에서 발표하고 가장 잘 행거준 동지에게 상을 준다.

8. 방중 기본 조직생활

(2시부터 시작됩니다.)

9시 전체일꾼 조례 및 신문발제

10시 전체 책임기 놀이

12시 점심식사

이후 단위 일정

5시 실천활동

7시 실천활동후 전체 중화

7/19

우리 역사 배움터 기획안

기간 20일부터 23일까지
장소 인문관 여느 강의실 (101호)

평가
평화 만들기

20일 1시 입학식 및 질책들이 ~~취급~~ 식의 준비, 중대생회
3시 1강 역사란 무엇인가 강형구 강사
4시 30분 2강 해방 전까지 우리 역사 조준규 강사
6시 전체 컵들이

21일 1시 3강 해방과 한국전쟁 최혜근 강사
2시 식사시간

4시 4강 한국전쟁 이후 현대사 열등훈 강사
2시 30분 경산 페르발트 광산 순례 차량 준비

을 때는 차 X

22일 1시 5강 경제사 추교준 강사
2시 30분 영화 감상 - 승환
4시 인생관 강연 - 권택홍 강사
학생회의

23일 1시 6강 6.15 등등선언 이행 도교등 강사
2시 30분 질답들이(?) - 학부의왕장이 준비
이후 저녁 단체트 촛불시의 결합

19일까지 전체 참가 인원 정확히 총화 조나누기
각 강연마다 깜짝 퀴즈대회 - 문화상품권 증정
졸업식 패 모델 학생 선달 - 선을 (책)
표사 대은 선장과 정리 빠른 시기 이뤄질 필요 있음
리플렛 제작 다음주까지 완료

강연 준비 정도

우리 역사 배움터 준비단

>> 경북대의 현황

경북대는 99년 이후로 총여학생회를 세워내지 못한 단위이다. 그 이후에도 단위 여학생회가 농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건설되기는 했지만, 총여학생회의 부재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경북대 여학생운동의 인적·물적 토대는 무너져가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과 기간의 평가들로 2003년 경북대는 총학생회 여성국이라는 체계로 여학우들에 대한 사업과 투쟁을 벌여나갔다.

여성국의 처음의 고민은 골간 체계를 가진 총학생회를 발판으로 여학우들의 모든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실현해 나가며 여학우들의 고민들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경북대 여학생 운동은 전여대협·대경여대협의 사업과 투쟁을 받아안고 학내에서 녹여내기 보다는 학내 사안에 중점을 둔 사업과 학내 여학생운동의 인적·물적 토대를 복원하기 위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3년 경북대 여학생운동은 총학생회 여성국을 중심으로 골간단위와 함께 벌여가는 대중사업과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한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 투쟁, 그리고 남아있는 과 여학생회와 여성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2003년 경북대의 사업과 투쟁

1. 반(反)성폭력 투쟁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투쟁했다.

대동제때 실천 활동을 진행하면서 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전여대협 반(反)성폭력 문화제까지 함께 하는 성과점을 내었지만 하반기 경북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주체적인 투쟁을 내어오지 못하는 한계지점이 있었다.

2. 반가부장제 투쟁

총학생회 여성국을 중심으로 경북대에서 대중사업 공간과 일상적인 사업과 투쟁으로 벌여갔다.

상반기 여성주의 의식지형 창출을 위한 일꾼학교라는 것을 통해 일꾼들의 의식 지형을 만들어나가는 시작점이 된 성과점을 내어왔지만 이후 후속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한계지점이 있다.

새터와 단대별 모꼬지에 양성평등한 생활 수칙을 제안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생활수칙 제안으로 과 학생회에서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단지 생활 수칙을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묶어내는 사업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3. 연대사업

농활에서 여성농민반 활동과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여성농민회와 함께 하는 마을별 순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성과

여성농민회와 함께 농활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풀어가면서 학생 뿐만 아니라 농민사이에서도 성폭력없는 농활만들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내에서 반(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농활 성폭력 신고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의 운영이 미흡했다.

【2003년 대경여대협운동 평가】

0. 2003년 대경여대협 운동을 평가하기에 앞서

1. 총평

2. 2003년 정세와 대경여대협의 과제

1) 정세
▷전체정세

▷여성정세

㉠. 2003년 반가부장제 정세
반성폭력 운동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 및 여성 학자투쟁

성매매 근절 투쟁

호주제 폐지 투쟁을 비롯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투쟁

여성 평화·통일운동

여성의 정치세력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 여성민중의 삶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3. 대중투쟁 평가

1)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

8월 대구경북 여성통일 캠페인-북미불가침조약철폐 서명운동
반미반전평화수호 여성선언

2) 반가부장제 투쟁

① 반성폭력운동

반성폭력운동은 2003년 대경여대협 운동의 핵심적인 투쟁과제였다.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인식의 뿌리깊지 않고선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지속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벌려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성 아래 지난해 반성폭력운동을 중심으로 두고 대학별로 대학의 상황에 맞게끔 놓치지 않고 반성폭력운동을 벌려내었다. 하지만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벌려내기보단 대중사업때만 성폭

력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계기적이고 소시기적이였다.

대경여대협 차원에서는 대구 여성의 전화, 각 대학과 함께 반성폭력 모임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는 속에서 대학별 주체들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며 조금이나마 전문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모임의 뚜렷한 성과 계획이 주체들로부터 각인되지 못하였기에 지속적인 모임을 진행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반성폭력 모임이 각 대학에서 나서는 반성폭력 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역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

영남대-대중사업과 결합

경북대-연대회의 운영, 교수성폭력 투쟁, 대중제에 결합

동국대-반성폭력 선언(출범식)

② 호주제폐지

호주제폐지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와 요구가 모아지고 그에 응당한 사업과 투쟁들이 진행되었던 한해였다. 이러한 추세에 대경여대협은 어떠한 투쟁을 진행하였던가.

대경여대협의 일관된 투쟁흐름으로 호주제폐지투쟁이 진행되기보단 전여대협에서 제안되는 투쟁과 사업을 쫓아가거나 대학별 대중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이 풀어지는 과정이 많았었다.

서명운동, 1만인 남성 선언운동

과학사회장 선언운동

3) 여성민중생존권 투쟁 및 연대사업

지난해 대경여대협의 조직이 건설되진 못했으나 체계 건설을 위한 일꾼들의 노력이 있었던 한해였다. 이러한 노력에 연동되어 몇 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맥이 끊겼었던 여성민중들과의 연대가 다시 시작되었던 성과가 있었다. 다양하고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여성민중들의 투쟁에 여학생회차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여성농민

영남대 영주여성농민과의 사업

경북대 의성여성농민과의 사업

경북여성농민한마당

② 여성노동자

파미힐스 투쟁, 경대 청소아주머니 투쟁

영남대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과의 사업

③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

3.8여성의 날 기념대회를 계기로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이 모여 2003년 여성들의 공동투쟁을 합의하고 만들어갔었던 성과가 있었다. 매월 1번의 캠페인을 계획하고 시기 시기마다 핵심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지 못하고 시기마다 제기되는 사안을 한번의 마당사업형태로 진행하다보니 사업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학생단위에서 여성캠페인을 투쟁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투쟁준비를 하지 못하고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등



여성민중의 삶에 청년학생으로서 응당한 몫을 해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4. 대중의식화 사업

영남대 이동여학생회, 화장실 신문, 비정기 행사 자료집
동국대 소식지

5. 조직사업 사업

1) 과학학생부·소모임

경산대 소모임사업

영남대 과학학생부 사업

경북대 과학학생부, 단대 여학생부 사업

동국대 소모임사업

2) 핵심일꾼 단련, 발굴

학습, 조직생활, 실천투쟁.

3) 자주적 여학생운동 이론 정립

4) 8기 전여대협 건설·강화, 14기 대경여대협 건설·강화

6. 15기 대경여대협의 총노선을 세우는 데서의 과제

1) 2004년 정세에서 청년여학생의 위치에서 해야할 몫은 무엇인지에 대해

2) 새 시대, 새 여학생운동을 어떻게 펼쳐 낼 것인지에 대해

3) 전여대협, 대경여대협 운동을 강화할데 대해

1. 18대 총여학생회 건설 과정과 준비정도

- 조직/체계 정비, 간부인선 -

- 여학일꾼이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간부인선은 처음부터 다소의 한계가 있었다.
- 체계정비나 간부인선에 관한 요구성에 대한 의지가 총여건설 얼마동안은 적었다-잘 모름
- 총여학생회 : 3월 넘어가며 점차 안정화됨
- 단대 여학생회 : 차이가 있으나 2명이상 간부있는 단위가 없어(문여체외) 어려움 있음
- 중앙운위 : 총여 건설이후 운위를 정기적으로 가져감. 내용적으로 무족성이 있음

2. 총노선

- 총노선 수립이 늦어짐(3월 - 개강이후) <----- 주체가 없고, 전여대협/새터 등등 눈앞의 사업에 매몰됨. 총노선에 대한 고민이 잘 되어지지 않음
- 기층과 함께 만들어 가지 못하고, 학우들의 요구의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직접 만나는 등의 노력없이 알아서 머리로 짐작하였다.
- 총여학생회를 위주로 한 핵심일꾼이 총적방향과 깊은 논의를 가져감 But(시간에 쫓기고 사업적으로 생각한 경향이 있음)
- 1년간 총노선을 의식적으로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는 않았으나, 매사업과 투쟁과정은 총노선의 핵심방향과 같았다.

3. 조직사상

- 과여학생회/ 대의체계 -

- 중앙위 : 상반기 -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위원들의 의지가 있었음.
- 하반기 - 잘 성사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음
- > 사업중심의 성격이 강하고, 총여학생회의 일상적 지도사업이 부족하였음.
- 『과 - 단대 - 총여』 로의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
- 과여학생회의 고민과 사업을 잘 담보해 내지 못하였다.

- 핵심일꾼 발굴사업 -

- 1년간 고민의 끈을 놓지 않고, 만나가려는 노력이 있었다.
- 간부 각자의 고민이 서로 잘 총화되지 않아 상황인식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 새내기사업 주체의 부족이 있었다.
- 人を 만나는데 있어 성급함이 있었고, (내용적)일꾼들의 준비정도도 낮았다.
- 핵심일꾼들의 학습과 교양이 잘 되지 않음 <----- 실천적 문제 + 요구성 낮음
- 구체적 계획이 있지 않음

- 일꾼들의 자기 역할 -

- 총여학생회 간부 : 실무적/ 사업적으로 더 많은 요구가 있었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하였음
- 상층 간부로서의 지도사업과 책임에 있어 부족 <----- 자각 x, 실력부족, 없는 간부속에 실무와 여러일정에 허덕이기도 함
- 단대여학생회 : 주체적 고민이 낮고, 단대상황에 많은 어려움을 느낌. 준비정도 낮음

- 조직 생활 -

- 총여학생회 : 회의의 안착화에 있어 성과가 있음. 요구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회의를 가져가지 못할때에 간부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기도 함. 의식적으로 고민
- But 자신스스로에 대한 꼼꼼한 총화와(일상적+사업적) 깊이있는 모습은 부족하였음.
- 사업적 성격이 배어남.

-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하여 -

- 자주적 여학생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
- 여성운동과 자민통운동의 관계(혹은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함 <----- 실제 맞닥뜨리는 부분의 고민도 있었음
- 논의를 잘 가져가지 못하였고, 풀어나는 과정이 부족점이 있음

4. 대중투쟁

- 6.15 공동선언 이행, 반미반전,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 투쟁(집회...)에 함께하고, 해야한다는 고민과 의지도 있고, 매사업의 중심고리로 가져나감
- But 실제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알려내는데에 적극적이지 못함, 이끌어내고 주체로 세워내는에 부족함.
- 여학단위에서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가지 않았다. 주어지는 데에 함께 하는 경향이 있었다.

- 반가부장제 -

- 1년간 지속적으로 알려냄.
- 깊이있게 사고하고, 전문적으로 풀어나는데에 부족성이 있었음.
- 반성폭력의 경우 주체 1인 외에 고민을 거의 하지 않음 만큼 함께 고민하지 못함, 주체의 고민을 심어주고 계기가 되는 과정은 있었음.

- 여성민중생존권 -

-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풀어가려 함. 학우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학내 비정규직, 농활) But 연대관계(성과는 있음) 이상의 고민이 되지 않은 한계는 있음.(나의 일이다. . .)

- 학원자주화 투쟁 -

- 여성학자사안에 있어 주체적 고민이 있음(복지, 교양과목, 성폭력 상담실. . .)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부족성이 있음.
- 결과적 성과의 부족

* 대중의식화 *한반이래다.*

- 대부분 일상사업과 대중사업때 풀어냄
- 일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주고받는 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과정이 됨.
- 알려내기 위주

5. 전여대협 의장단위로서의 평가

-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 부회장의 역할규정이 잘 정리 되지 않아, 서로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음
- 회장의 부재시 사업이나 총화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전여대협에서의 지도사업에 부족성이 있었음.
- 의장의 역할을 잘 가져가지 못하였음
-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이행하고, 조직화 등등에 있어 잘 가져가려고 노력하였음. But 의장단위로서의 의식적 모범장출의 부족점이 있음. 실제 내용과 투쟁에 있어 잘 받아안아야겠다는 의식성은 부족하였음.
- 영남대 여학일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짐.